



루게릭병 클리닉 소식지



루게릭병클리닉
Lou Gehrig Clinic

Lou Gehrig Clinic Hanyang University Hospital

♠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를 위한 가족 참여 자가관리 프로그램 ♠

날씨가 점점 더워지고, 일교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.

변덕스러운 날씨 따라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,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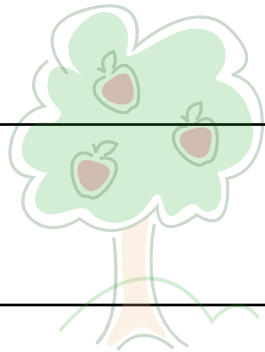
5월28일 클리닉 모임에서는“신비로운 아로마 테라피”라는 주제로 강의와 실습이 있었습니다.

아로마 오일의 대중적 치료로서의 효과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이론적인 증거들을 확인하였고, 아울러 많은 환우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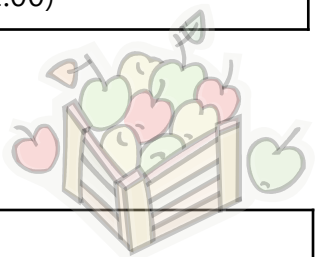
6월18일 에는 “루게릭병의 최신치료” 라는 강의 주제로 백원기 교수(한양대학병원 신경과)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자가관리 프로그램 일정 안내

6월18일 (3째주)	루게릭병의 새로운 치료	백원기 교수 (한양대학병원 신경과)
강의장소 : 본관3층 강당 (오전 9:30~10:30) 강의 후 진료 : 본관1층 신경과 외래 (10:30~12:00)		
7월23일 (4째주)	루게릭병의 단계별 운동 및 연하장애 관리 2	김태곤 교수 (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)
강의장소 : 본관3층 강당 (오전 9:30~10:30) 강의 후 진료 : 본관1층 신경과 외래 (10:30~12:00)		



아로마 오일 원액 사용은 자제하시고,
반드시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소지자에게 문의하십시오.



총괄 책임자 : 김승현 교수

신경과 전문의 - 김승현 교수 고성호 교수 백원기 교수 오기욱/박진세 전임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- 이규훈/김태곤 교수 신경과 전공의 - 오경필,오성일 외 11명	환자 관리 - 김소영, 안지원, 오주연 간호사
	영양관리 - 백희준 영양사
	사회복지 - 성명순 사회복지사
	봉사 - 서울여자간호대학 간호학부학생 (기(氣)손반사 동아리)
	예약(외래) : 02) 2290-8367 문의사항 : 02) 2290-8369

주소가 바뀌었거나, 개인사정으로 소식지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는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

<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>

1. 고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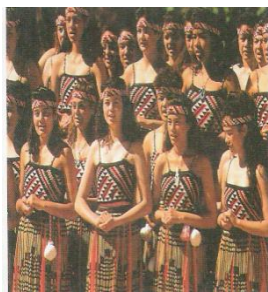
- 클레오파트라(로마)시대 : 자스민, 로즈(위생, 미용, 최음 효과 및 사체 부패 방지, 미이라 제작) 최초 의학과 설립, 향에 대한 교과목 포함
- 히포크라테스(기원전 469~399) : Medical plant 300여종 기록, 병 치료, 미용(아로마 성분)
- 로즈마리, 히썬 등 종교의식, 병자치료
- 로마시대 : 많은 그리스인이 로마로 이주, 활발한 국제교류
- 인간을 전체로 치료
- 아로마 성분으로 질병 치료 남김 : 로즈마리(두통, 소화개선) 케모마일(피부문제, 상처 치유)
- 상업성, 무역 및 생활 용품화 : Pleasure (Hair, Body, Cloth & Pain relief, 목욕 후 마사지)

2. 중세

- 페스트, 콜레라 예방 및 치료 : 파인, 프랑킨센스
- 루이 14세 (17세기 후반) : 약으로 사용, 전 유럽 확산



피부병 치료를 위한 중세기 목욕장면



향주머니를 달고 있는 뉴질랜드 마우리족의 민속의상

3. 근대

- 19세기 이후 : 아로마 요법의 부흥(성분에 대한 과학적 실험, 화학구성과 oil분자배열 연구활성화) René Maurice Gattefossé(프랑스, 1881~1950) : 아로마 성분 및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체계화 (1928) 약초학의 분과로 아로마 치료학 용어 사용
- 라벤더 : Healing power 체험
- Valent, J (프랑스, 외과의사) : 2차 세계대전에 참여. 병사부상치료, 수술부위 및 도구 (에센셜오일) 저서 : 'The Practice of Aromatherapy' (아로마 요법의 Bible : 이론과 실기 정립)

4. 현대

- 각 대학, 병원, 연구소 등 연구지속
- Piaget 등(프랑스, 의사), beauty therapist에 의해 발달 및 유럽 확산 : Holistic Health 커다란 공헌
- 미, 영, 불, 캐나다, 호주 : 마사지 활성화
- 프랑스 : 의사처방(구강복용법 - 의료보험 적용)
- 만성 스트레스, 불면증, 소화불량, 두통 등
- 면역기능 향진

♣ 21세기에 부각되는 이유 ♣

- 하버드 의대조사(1991년) : 요통(36%), 불안(28%), 두통(27%), 만성통증(26%), 암/종양(24%)등 응답자의 1/3 이상 과거에 적어도 1회 이상 사용
- 미국 : 보완대체요법을 위한 보험회사 설립(1997), 117개 의대 중 64%(75개) 선택 강의 개설, 이 중 38개의 강좌는 가정의학과 운영, 4개는 내과운영 - 79%에서 학점부여

♣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 ♣

- 다양한 천연식물의 꽃, 잎, 줄기, 뿌리 등에서 추출된 Essential Oil의 치료적 성분을 이용한 일련의 치료법 (Worwood, 1996)
- 정신적, 신체적, 정서적, 영적 차원의 치유 및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전인치료적 요법 (Holistic Therapy)

♣ 아로마 테라피의 치료기전 ♣

식물이 스스로의 생존과 영속을 위하여 만들어 내는 'Essence'이며 그 식물의 'soul'인 에센셜 오일은 종류법을 통해 식물로부터 분리되어 얻어지는 것으로 수 많은 다양한 화학구조로 구성

♣ 생로병사(2005년 8월 23일) ♣

- 맨체스터 대학 : 아로마 마사지 적용(라벤더, 레몬) 2회/일 치매환자, 향기 마케팅
-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 센터 : 불면, 호흡 곤란에 효과
- 프로방스 지역 : 실생활 적용(라벤더 워터), 살균효과